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청소년 인성, 뇌 안에 답이 있다

뉴스레터 제 2018-130호 | 발행일 2018. 3. 5(월)

Contents



- 서울뇌교육협회, 문래초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 경남뇌교육협회, 진주중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 경남뇌교육협회, 도동초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 경기뇌교육협회, 제암초 뇌교육 브레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최

- 경기뇌교육협회, 제암초 뇌교육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최

- 서울뇌교육협회, 장월초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 경기뇌교육협회, 정자초 토래관계증진 뇌교육 개최

- 전북뇌교육협회, 남원초 가족힐링캠프 개최

- 발행처 : (사)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www.youthinsung.org

- 발행인 : 김나옥

서울뇌교육협회, 문래초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서울뇌교육협회는 2월 5일과 6일 이틀간 문래초등학교 4학년 7학급 19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뇌교육 인성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인성캠프를 체험한 아이들의 느낀점을 들어보았다. 4학년 2반 안소윤 학생은 캠프 중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으로 선생님께 감사편지쓰기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하지 못했던 말도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께 마음을 전해서 의미가 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4학년 2반 최00 학생은 친구에게 사랑에너지 전달하기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를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느낌

을 느껴서, 또 사랑을 느낀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라고 했다.

4학년 2반 조00 학생은 인성캠프 전체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양심을 온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라고 답했다.

4학년 4반 오00 학생은 “뇌교육 인성캠프를 한 뒤에 뇌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전체적인 소감을 말했다.

4학년 7반 이00 학생은, “사랑에너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경남뇌교육협회, 진주중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경남뇌교육협회는 2월 6일, 7일 2일간 진주중학교 2학년
전체 190명을 대상으로 뇌교육 인성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를 체험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명상 교육을 해서 좋
았다.”

“전부 다 재미있었고, 좋았다. 용기가 생겼다.”

“몸이 단련되었고, 정신력을 길렀다.”

“힐링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다. 친구들이랑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것이 좋았다.”

“선생님들이 유쾌하셔서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
고 말했다.



경남뇌교육협회, 도동초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경남뇌교육협회는 2월 5일, 8일 2일간 도동초등학교 5학년 전체 130명을 대상으로 뇌교육 인성캠프를 개최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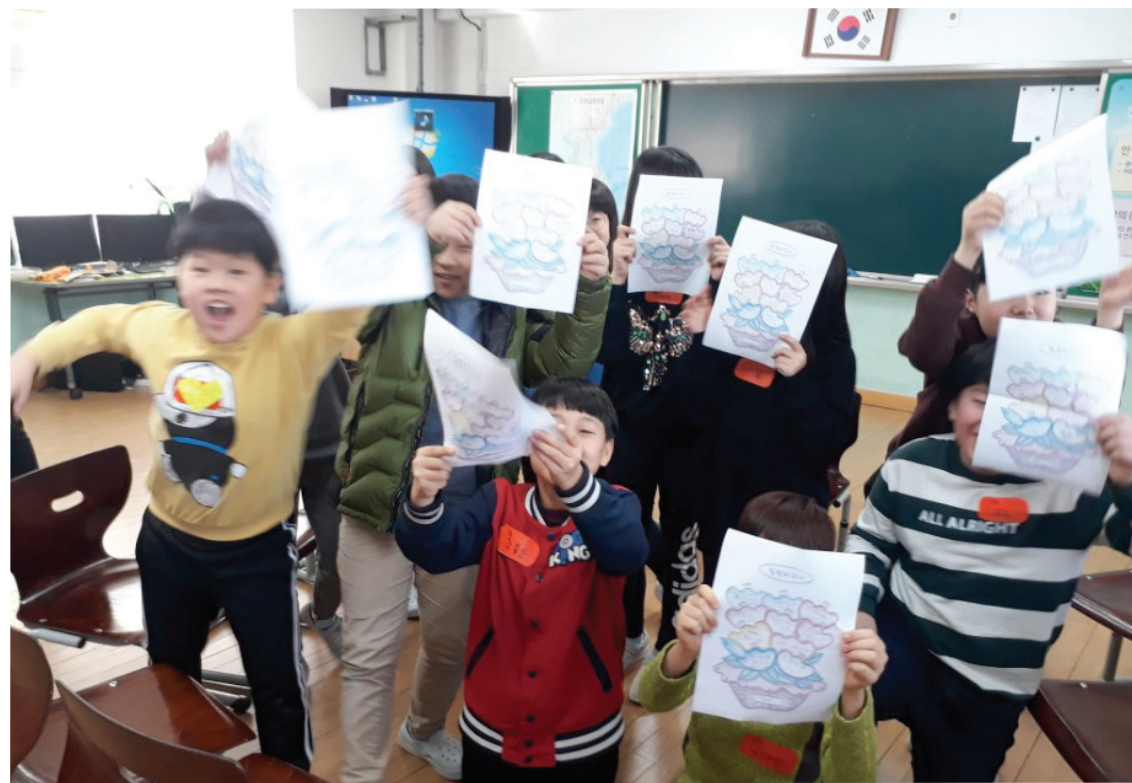
“자신감이 넘친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다.”
〈최정현 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것이라고 생각했다.”
〈조한솔 양〉

“마음에 있는 상처를 꺼냈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써서 좋았다.” 〈조서연 양〉

“나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전유정 양〉
라고 대답했다.

인성캠프 트레이너 김명숙씨는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아이들이 힘들어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조차 모르던지 아니면 감정 표현을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캠프를 받고 스스로 자기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줘야겠다고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학교에 캠프를 많이 열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뇌교육협회,

제암초 뇌교육 브레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최



경기뇌교육협회는 2월 1일 제암초등학교 6학년 5개반 128명에게 뇌교육 브레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뇌교육 브레인 진로탐색을 통해 아이들이 느낀점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풍당풍당 게임을 하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놀이공원을 그려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림들을 보고 어느 모둠이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즐겁고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즐겁게 웃으며 활동을 했던 것 같다.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상상해서 그린 놀이공원이 멋져 보였다. 기억에 제일 남을 것 같다. 어떤 직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내



가 원하는게 이루어진다면 힘들어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수업이 나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다. 나는 맛있고 몸을 건강하게 해 줄 요리를 가르칠 요리강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뇌교육협회, 제암초 뇌교육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최



경기뇌교육협회는 1월 25일 제암초등학교 6학년 5개 학급 128명의 학생에게 뇌교육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아이들이 뇌교육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보았다.

“항상 힘들거나 속상했던 것들을 다 모아놔었는데 그렇게 하

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나는 마음을 억제하면서 살았는데 이번 수업을 계기로 내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항상 밝은 승은이가 되어보고 싶다. 항상 웃고 행복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즐겁게 웃는 내가 될 것이다.”

“이 수업을 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긴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다. 항상 지루하기만 했던 수업시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 같다. 나한테도 친구들에게도 모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뇌교육협회, 장월초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서울뇌교육협회는 2월 2일 장월초등학교 6학년 4학급 84명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흥익인간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뇌교육 인성캠프를 개최했다.



경기뇌교육협회, 정자초 또래관계증진 뇌교육 개최



경기뇌교육협회는 1월 3일 정자초등학교 4학년 27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증진 뇌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또래관계증진 뇌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느낀점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친구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어 더 좋았다. 또 에너지 느끼기 할 때에는 손에 진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신기했다.”

“재미있었다. 뇌교육도 하고 에너지 느낀 것이 좋았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것이다.”

“다음에 또해서 만들기를 하면 좋겠다. 이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인간보물 찾기가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전북교육협회, 남원초 가족힐링캠프 개최



전북교육협회는 1월 3일 남원초등학교 1학년 11가정을 대상으로 가족힐링캠프를 개최했다.

가족힐링캠프는 아이와 부모가 한 집에 살면서 그동안 말 못

했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캠프이다. 그래서인지 가족힐링캠프는 호응이 좋고, 이번 남원초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아 올해 또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 캠프를 통해 부모들이 느낀점은 무엇이었을까 소감을 들어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를 낳아 엄마도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항상 미안하고, 그래도 잘 자라준 너에게 너무 감사해.”

“지금 당장만을 보며 살기 바빴는데 마사지를 해주면서 처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도 나고 뱃속에 있을 때도 생각이 나서 ‘그땐 그랬지..’ 하며 아이에 대한 감정이 끌어 올랐다. 학교, 집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많은 소통을 하게 되어 좋았다.”

“오랜만에 아이를 힘껏 안아보고 아이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레크레이션으로 어울리고 손마사지랑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춤추고 접촉하는 느낌이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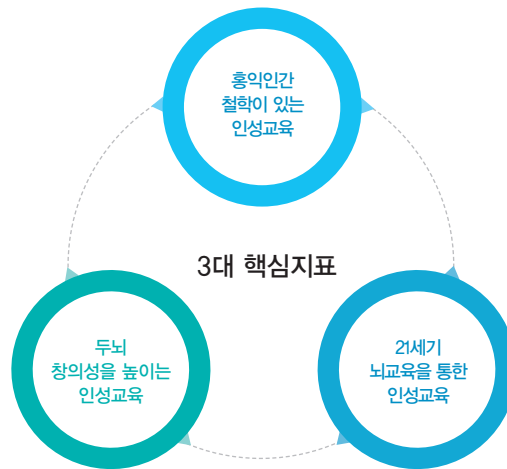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한 캠프를 통해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랑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함께해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 설립목적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21세기 뇌과학에 기반한 신체, 정서, 인지학습관 통합적 교육을 추구합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미래교육대안 뇌교육을 통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추구합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철학**을 핵심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 중점추진사업

체험형 인성교육 보급

○ 학교 변화

- 행복한 뇌교육 학교 만들기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학부모 변화

- 학부모 뇌교육 연수, 가족캠프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학생 변화

- 방과 후 학교
- 재량학교
- 대안교실
- 두뇌코칭
- 뇌교육 특강
- 뇌교육 인성, 진로 캠프 등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교사 변화

- 교사 뇌교육 연수, 힐링캠프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Youth Mental Health Character Education Association